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유산,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의 문화”

이춘성 목사 “유전자 전장검사, ‘완벽한 아이 고르기’라는 엄격한 선별… 시장 논리 아닌가”

이춘성 목사(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무국장, 분당우리교회 협동목사·사진)가 최근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홈페이지에 ‘완벽한 아이를 향한 비뚤어진 욕망: 유전자 검사를 통한 새로운 산전검사의 도입과 그 위험성이라는 주제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목사는 “지난 9월 WIRED Health 2025 무대에서 미국 스타트업 오키드(Orchid)의 CEO 누르 시디키(Noor Siddiqui)는 이렇게 선언했다. 그녀의 회사는 아직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초기 배아의 DNA를 전장 유전체 수준에서 분석해(Whole Genome Sequencing), 수천 가지 질병의 위험도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건강할 가능성이 높은 배아를 골라

이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사디키는 이 기술이 희귀 유전질환은 물론, 심장병, 당뇨, 치매, 정신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미래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유전질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머지않아 이 방식이 임신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전은 겉으로 보기엔 부모와 아이를 향한 배려처럼 들린다”며 “이제 우리는 ‘유전자 전장검사라는 새로운 산전검사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겉으로는 더 좋은 돌봄과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하는 일은 ‘완벽한 아이 고르기’라는 이름의 더 엄격한 선별”이라고 했다.

또 “이 선별은 단순한 의학적 조연을 넘어,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

를 바꾸고 있다. 이제 인간 생명은 더 이상 태어나는 것만으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선택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사랑’이나 ‘존엄성’이 아니라, 시장 논리”라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계산이 단지 개인 윤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미리 걸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장애나 만성질환 가능성이 있는 아기들은 점점 ‘날 아시는 안 될 생명’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과 일부 생명윤리학자들은 이 흐름을 ‘부드럽게 포장된 우생학(eugenics)’이라고 비판

한다. 약한 생명은 단지 치료가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미리 사라져야 할 리스크로 바뀐다”며 “이 변화는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불들어온 복음적 상상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복음은 약자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약자를 품으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 기술이 사실상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부와 건강을 대물림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PGT-A 같은 검사는 수천 달러가 들지만 보험은 잘 안 된다. 전장 유전체 배아스크리닝은 별도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통계적으로 더 안전한 배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그냥 자연임신을 한다. 이것은 건강, 지능, 정신질환 위험도 같은 요소들까지 계급화할 위험이 있으며, 부자들은 유전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아이를 선택하여 가질

특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목사는 “유전자 기술 발전 그 자체를 악으로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며 “희귀하고 치명적인 유전질환을 막는 것은 선한 일일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의 고통을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 리하여 유전자 기술의 발전을 공장 악으로 못 박을 일은 아니다. 희귀하고 치명적인 유전질환을 막는 일은 선할 수 있고, 아이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사랑에서 비롯됨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래 놓이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이기심으로 기울기 쉽다. 그 사랑은 부모의 기대와 욕심을 따라 생명을 고르는 힘, 마치 창조자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들을 앉게 만든다”고 했다.

또한 “기술은 부모의 불안을 잠시 덮어 주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이 아이를 살리지 지을지’와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의료 체계는 그 결정을 합리성이라는 말로 감싸고, 시장은 그것을 출산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포장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며, 약할수록 더 보호받아야 하고, 불확실할수록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이다. 또한 기독교 윤리학자 메일랜더의 말처럼, ‘네가 존재해서 좋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이유로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정말로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유산은 유전적으로 정제된 완벽함이 아니라, 약함과 위험을 지닌 생명도 존중받는다는 확신, 곧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의 문화”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AI를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정합동 총회 교육부, 2026 총회교육주제심포지엄 개최

예정합동 총회 교육부(부장 이경조 목사)는 최근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2026 총회교육주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교회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으로 AI 바라” 심포지엄의 첫 강연은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주제로 AI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연을 맡은 신국원 교수(총신대 명예)는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기’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신 교수는 “AI 시대를 맞

이한 우리 시대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씨름”이라며 “AI 기술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I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으로 AI를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분별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 통해 분별력 길러야”

정석원 목사(오늘의교회)는 ‘AI 시대, 왜 기독교 세계관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다음세대가 파편화된 정보와 AI기술에 익숙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며 “AI는 ‘무엇을 아는가’에는 뛰어나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한다”고 했다.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최고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며 “AI를 통한 이단 사상과 신앙의 왜곡을 경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리터러시 교육, 다음세대 분별력질 제력 기르는 기초

“디지털 세대를 세우는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강연은 먼저, 함영주 교수(총신대)가 ‘디지털 세대, 신앙 형성의 교육학적 기반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함 교수는 “AI 시대에 다음세대가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AI 리터러시 교육이 다음세대의 분별력과 질제력을 기르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AI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날로그 교회 사역 회복해야”

김민호 목사(히즈뷰아카데미 대표)가 ‘디지털 세대,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AI 시대의 교회 효율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디지털로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김 목사는 “디지털 기술을 절제하여 사용하는 아날로그 교회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일 스마트 기기 금식일 선포, 전 세대 예배 회복,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절제를 갖추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AI, 대체제 아닌 촉매제로 활용해야”

마지막 세 번째로 ‘기술과 문화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확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김성훈 교수(총신대)가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과 생성형 AI’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AI는 영적 메시지나 공감을 대체할 수 없다”며 “AI는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사고 주체가 아니라, 통계적 패턴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AI를 교회 행정의 효율화, 공과 교제 초안 작성, 이미지 생성 등 사역의 대체제나 아닌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전했다.

◆“알파 세대, 미래 교회 리더로 양육을”

정평진 목사(브리지임팩트사역원 대표)는 ‘AI 시대, 디지털 세대의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알파세대는 ‘디지털 고독감’과 ‘낮은 행복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포지탈(Physical+Digital) 접근’과 ‘세대 간 수직적 제화화’를 통해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며 “알파 세대를 더 이상 팔로어가 아닌, 미래 교회의 리더로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역량을 축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개회예배에서 총회교육부



신국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정석원 목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장 이경조 목사가 로마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AI는 정보는 처리할 수 있지만 은혜는 이해하지 못하고, 패턴은 분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며 “AI 시대의 가

장 큰 위험은 ‘무엇이 편리한가’를 묻는 신앙의 게으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액상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로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한교총, 튀르키예 지진 복구 현장 찾아 준공식 진행

국괴들과 함께 현지 방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이하 한교총) 대표회장단이 국괴(회장 이용기)이 주관해 진행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복구 지원사업 현장을 찾아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한교총이 최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부터 현지에서 진행된 이번 일정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윤-박병선 목사와 국괴를 김상엽 운영부회장, 장용한 부회장이 동행했다.

한교총은 2023년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회원 교단의 성금을 모아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튀르키예 개신교회연합(TEK)과 튀르키예한국인 사역자협의회(한사협)등과 협의회 복구지원 방향과 대상을 추천받아 피해가 심한 지역의 사역 현장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고, 그 현장 실무를 NGO 국괴들에게 맡겨 진행했다.

총 모금액 51억 원 중 16억 원은 교단에서 지정한 대로 시리아 난민 구호와 긴급 구호에 사용하고, 35억 원은 복구 사업에 직접 투입했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보면, 2024년 5월 202가구가 거주하는 말라티아 PCK 한국마을 내 문화센터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말라티아 외곽

지역 18가정을 위해 컨테이너 주택을 건립했으며, 하눔은치프틀르 초등학교에 2개의 임시 교실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말라티아 주정부와 협의해 진행 완료한 사업이라고 한다.

이번에 준공식을 가진 하타이 알티노주 지진피해 이재민 가정집과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으로 4가정이 입주하며, 200여 명이 수혜를 입게 됐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준공식에는 한교총과 국괴를 관계자 외에 현지 교회 셀림 목사와 베드리 목사, 현지 교인 등이 참석했으며, 현지 어란이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번 지진 복구 사업은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드리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길 소망하며 진행한 일”이라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앞으로 복음 사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이 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는 말씀처럼, 튀르키예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며 불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원했다.



한교총의 튀르키예 지진 복구사업 준공식 현장의 모습. ©한교총

이어 국괴를 이용기 회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가정집과 커뮤니티센터가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사랑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며, “2023년 2월, 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 지역에 이 곳에 희망의 타전이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라고 말하고, “이 커뮤니티센터가 세워지기까지 헌신한 주신 예수그리스도교회의 셀림 목사님과 튀르키예 개신교회연합의 베드리 목사님, 후원해 주신 한교총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준공식에 함께 참석한 이용기 목사는 “이역만리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게 된 영광에 감사하며, 수고해 주신 국괴를 임직원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으며, 박병선 목사는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 난민들과 이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평가한다.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사협의 윤성희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한국교회가 한사협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교회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한국교회가 다양한 면에서 튀르키예를 지원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이



현지인들과 함께 한 모습 ©한교총



지진피해 이재민 가정집과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을 기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단은 건축이 진행중인 하타이 안타키아 KCT 자립지원센터 건축사업 현장을 돌아보았다. 이 사업은 알수스 지역에서 작은 규모의 마을 건축을 진행해오나, 협력하기로 한 인접국 교회와의 협의와 지방 정부의 부지 증여 철회로 결국 안타키아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는데, 이 사업은 직접 수혜자 40명과 간접수혜자 1천여 명에 달하는 큰 사업이라고 한다.

대표단은 임시로 사용하는 교회에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광림교회가 복원 중인 안타키아교회(안디옥교회)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어 대표단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하타이 이스켄데르 가정집과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건축 경과를 살피고, 이재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전달 격려했다. 이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7명이며, 간접수혜자는 1백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한편, 한교총에 따르면 아디아만에서 쿠틀루시교회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현장은 공사중 기독교 관련 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주춤하고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대표단이 방문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진 피해지역은 정부의 활발한 노력으로 임시주택 거주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등, 안디옥교회가 있는 안타키아 중심지의 경우 문화유산이 많아 아직 잔해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어서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교총이 추진한 튀르키예 지진 복구 지원사업은 오는 12월 총회에 최종 보고되며, 내년 상반기에 잔여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마감한다. 김진영 기자

북한인권 단체 ‘씽크’, 체코서 청년 국제교류 프로젝트 전개

폴란드 이어 체코로… 동유럽 민주화 현장서

북한인권과 평화통일 가치 확산 나서

씽크는 최근 청년 북한인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인 ‘자유를 따라, 통일을 향해(철의 장막에서 38선까지)’의 폴란드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그 여정을 체코로 이어갔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유럽의 민주화 역사와 인권 회복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세계적 담론 속에서 재조명하고 청년 세대가 국제 사회 속에서 역할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

서 폴란드 국립추모연구소 관계자 및 연구진과 세미나를 열고, 공산체제 아래에서의 시민 저항과 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을 나눴다. 또한 바르샤바 봉기박물관, 문화과학공전, 유대인 역사연구소, 오스카 신티러 공장 박물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흔적을 직접 체험했다.

씽크는 이러한 현장 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인권 회복

의 가치를 체감하고, 이를 북한 사회의 현실과 통일 논의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체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한 경험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일 찰스대학교, 4일 팔라츠키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 세션으로 이어진다. 현지 대학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체제전환의 교훈을 북한인권 담론과 연결하고, 국제 청년 세대 간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씽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세대가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인권과 통일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보편적 인권 이슈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손문경 씽크 대표는 “청년들이 동유럽 시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며, 북한 주민의 권리와 통일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폴란드 국립추모연구소(IPN) 세미나에 참석한 사단법인 씽크 청년단. ©씽크

더펠로우십 코리아, ‘리빌드 이스라엘’ 캠페인 전개

국제구호재단 더펠로우십 코리아(운영대표 김영미)가 전쟁과 테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리빌드 이스라엘(Rebuild Israel)’ 캠페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시편 122:6) 말씀을 주제로, 기도와 나눔을 통한 회복 사역을 한국교회와 함께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펠로우십은 “최근 2년간 이어진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 내 의료교육·주거 기반이 심각하게 붕괴됐다”며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신앙적 연대와 실질적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리빌드 이스라엘’은 병원, 학교, 난민 주거, 심리 회복센터, 긴급 구호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하이파와 텔아비브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병원과 응급센터를 재건하고, 트라우마 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아슈켈론과 스테루트에서는 교실과 도서관, IT 학습실을 복원해 전쟁으로 학습권을 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네게브와 가자 인근 지역에는 난민 가족을 위한 임시 쉼터 및 장기 거주단지를 조성하고, 갈릴리 지역에는 아동 심리치료센터를 세워 전쟁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의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북부 국경 지역에는 이동식 대피소와 응급 구호 키트, 발전기, 구호 차량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구호 모금 운동을 넘어, 기도와 후원이 결합된 ‘영적 회복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정기 후원금은 이스라엘 내 빈곤 가정의 식량, 전쟁 피해자의 치료비, 그리고 유대인 귀환(알라야)과 정착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모든 후원자에게는 ‘살림 기도 노트’가 제공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더펠로우십은 오는 12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성수동 성락성결교회에서 ‘브릿지기도회(Bridge Prayer Meeting)’를 개최한다. 이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노형구 기자



하마스 공격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브엘세바 지역. ©더펠로우십 코리아

캠페인 슬로건인 ‘우리의 기도로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은 믿음과 나눔을 통해 무너진 땅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영미 운영대표는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을 여는 열쇠이며, 작은 헌신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더펠로우십은 향후 한국 내 주요 교단 및 선교단체와 협력해 ‘리빌드 이스라엘’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현지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퀴어행사 반대 제주도민대회, 제주시서 개최

“아이들이 눈 감아야 하는 퀴어축제 중단하라…
제주평화인권헌장 즉시 폐기하라”

제주 지역 사회가 퀴어행사와 인권헌장 제정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퀴어 행사 반대 제주도민대회가 최근 제주시 중앙사거리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성서화운동 및 제주거룩한방파제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현장에는 500여 명의 도민과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퀴어축제 개최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제주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라야 할 청정하고 평화로운 섬”이라며 “그러나 최근 퀴어행사와 인권헌장 논의가 제주의 도덕적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발표 “아이들이 눈을 감아야 하는 축제를 멈춰달라”

이날 현장에서 발표된 ‘퀴어 행사 반대 및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성명서’

는 도민들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담았다. 성명서는 “아이들이 눈을 감아야 하는 축제를 멈춰주십시오”라며 “퀴어축제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다수 도민의 상식과 윤리에 반하는 선정적 행위들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는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거리에서 유해한 장면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과연 축제라 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동성애 퀴어행사이지 결코 인권축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혼란과 방종을 가르치는 퀴어행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질서 훼손, 청소년 유해, 사회 분열 초래”

도민연대는 퀴어행사의 공공장소 개최를 반대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건전한 사회의 법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이며, 둘째, 과도한 성적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셋째, 도민 간 갈등과 분열을 조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제37조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도민대회 모습. ©제주거룩한방파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행사는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 양심 억압하는 행정 폭거”

성명서는 퀴어행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도민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헌장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 헌장이 통과되면 퀴어행사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조차 차별로 낙인찍히고, 자녀에게 건전한 윤리관을 가르치는 일마저 제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명서는 “오염된 제주도지사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사들만 제정위원으로 구성했다”며 “기독교계를 포함한 반대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



도민대회 후 퍼레이드 모습. ©제주거룩한방파제

다. 또 “헌장안 2조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남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동성 간 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동성애자 비난’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도민의 3분의 2 이상이 인권헌장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아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제주도민의 여론이자 상식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의 뜻 외면한 일방 추진은 폭거… 제주 지키자”

성명서는 “지난해 9월부터 도청 앞에서 비바람 속에서도 파켓시위를 이어왔지

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을 외면한 일방적 추진은 행정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진심 어린 걱정을 외면하지 말고, 청소년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의 마지막에서 참가자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시 폐기하라! 퀴어 행사를 중단하라! 우리의 아이들과 제주를 지켜내자!”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제주도민연대는 향후 서명운동과 도의회 앞 시위, 연합집회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도민의 신념과 양심을 짓밟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지동 기자

파키스탄 법원, 자란왈라 기독교인 폭력사건 ‘사법 조사 요구’ 기각

“정의의 문 닫혔다”… 수백 개 교회와 기독교 가정 공격 사건, 2년 만에 법원서 각하 결정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2023년 파키스탄 자란왈라(Jaranwala)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反)기독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법 조사 요청이 결국 기각됐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0월 22일 라호르 고등법원은 사건 관련 개인 및 기독교 단체들이 제출한 모든 청원을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며, 사실상 사건의 법적 진상 규명 가능성은 막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아심 하피즈(Asim Hafeez) 판사는 “법원이 사법위원회 구성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없으며, 이미 합동 수사단(JIT)이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 구성은 중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사법위원회가 꾸러질 경우 기존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1969년 제정된 ‘편자브 조사위원회 조례(Tribunals of Inquiry Ordinance)’ 제3조에 따라 사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사기구 구성이 가능하며, 합동수사단의 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2023년 8월 16일 발생한 자란왈라 폭력 사태는 두 명의 기독교인이 꾸란을 훼손하고 이슬람 예언자를 모독했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면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수십 개 교회와 수백 채의 기독교인 가정이 공격받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사건 이후 편자브 임시정부는 8월 24일 10개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원인과 대응 실패를 조사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보고 내용은 비공개로 남았다.

법원은 또, 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합동 수사단의 구성 절차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기존 법률의 범위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청구인들이 경찰의 공모 의혹에 대해 형사소송법 22-A 및 22-B 조항에 따라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유 가능한 구제 절차를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명시했다.

한 베테랑 기독교인 변호사는 의명을 전제로 “청구인 측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소수자의 기본권을 법정에서 충분히 해석하고 주장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배당 파괴와 성경 훼손은 헌법상 보호받는 신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사안으로, 1969년 조례에 따라 사법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변론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합동수사단이 이미 수사 중이라며 별도 사법 조사를 거부할 때, 청구인 측은 ‘형사사건 수사’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정부 대응 실패’를 다루는 별도의 사법조사를 요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년간 법원에 계류되었으나, 실질적인 심리나 청문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 단체들이 사건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거나 여론 압박을 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패인”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권단체에 따르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외국 후원자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재판 지원이나 피해자 변호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연 기자

NBA 조 마줄라 감독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 중”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 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 조 마줄라(Joe Mazzulla)가 자신의 신앙 여정과 내면의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마줄라 감독은 최근 팟캐스트 ‘갯스플레이닝(Godsplaining)’에 출연해 “언제나 집사(Deacon)가 되고 싶었다”며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말했다.

CP는 마줄라 감독이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 스포츠 세계는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며, 신앙의 가치와 부딪힐 때가 많다. 나는 이제 집사 후보 자격을 갖추게 됐다.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다.

CP는 가톨릭교회에서 집사는 세례를 집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며, 결혼식과 장례 예식을 주관할 수 있는 성직자라고 밝혔다. 35세 이상 남성이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서품을 받을 수 있으나, 아내가 사망할 경우 특별 허가 없이는 재혼이 불가능하다.

마줄라 감독은 승리에 대한 열망과 신앙의 균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이 이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사이의 간극이 어렵다”며 “10년 후 내가 세상의 성공에만 집착한 부자 청년처럼 변해 있지 않을까 두려웠다. 세상의 보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영적인 것을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 요셉 앤서니 크레스 신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긴장감”이라고 공감했다. 마줄라는 “바로 그 긴장 속에 내가 있다. 쉽지 않은 자리”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린 시절부터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보다 ‘나는 농구 선수다’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다”고 회상했다. 대학 시절 부상으로 1년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농구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마줄라 감독은 “그 때 비로소 알았다. 나는 영적인 공허함을 세상의 것, 곧 농구와 성공으로 채우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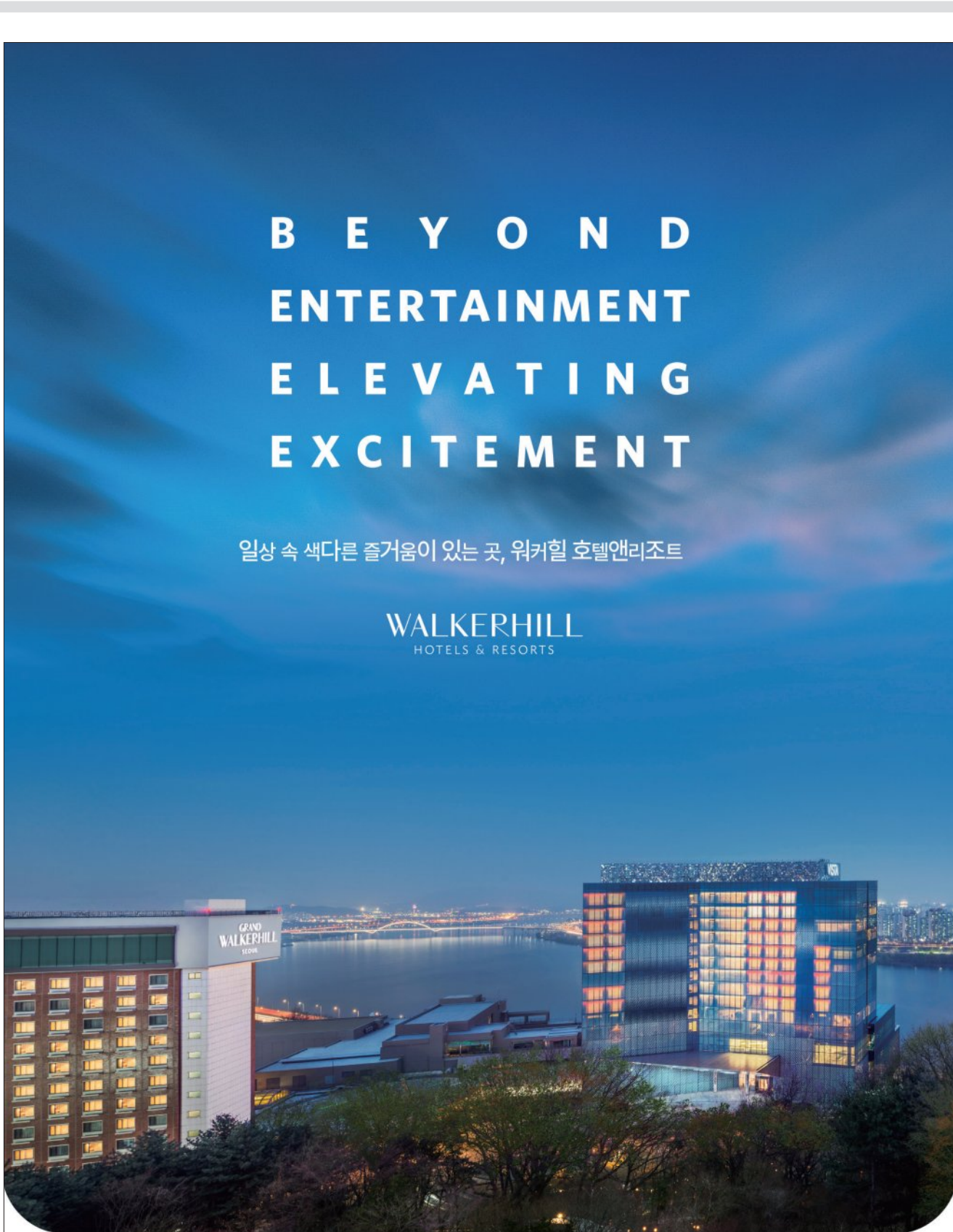


NBA 보스턴 셀틱스 조 마줄라 감독은 팟캐스트 ‘갯스플레이닝(Godsplaining)’에 출연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YouTube/CLNS Media Boston Sports Network

이어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경기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믿으라. 네 가치는 일시적인 경기력이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에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농구는 결국 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김성국 목사 천국환송예배 “하나님 나라 위해 불태운 생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진행... 교계 지도자들 찾아 고인의 삶 기려

뉴욕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담임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10월 31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졌다.

혜장암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 지난 10월 27일, 향년 6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 목사의 소원은 뉴욕과 미주 교계에 한층 깊은 슬픔을 안겼다. 이날 예배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O) 총회 관계자와 뉴욕노회 목회자, 교계 인사,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여해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헌신을 기억했다.

예배는 김만중 목사(뉴욕노회 서기)의 인도로 드려졌고, 최해근 목사(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리며 “사랑하는 종을 먼저 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주의 섭리를 믿는다.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날 소개된 고인의 약력은 유난히 특별했다. “1957년 10월 11일 태어나 2025년 10월 27일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간결한 소개 뒤에는, 세상에서의 이력을 일절 나열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

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단 한 문장만 안내왔다. 그 문장은 김 목사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그가 남긴 마지막 설교처럼 회중의 마음을 울렸다.

설교는 한일철 총회장이 맡아 디모데후서 4장 6-8절 말씀으로 ‘신앙의 완주, 그가 받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그는 “김성국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분이다. 그의 죽음은 주자가 아니라 복된 마침이며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영접하셨다”고 했다.

이어 “김 목사님은 교회와 총회, 신학교, 신문사까지 복음의 모든 영역을 열정으로 섬겼다. 아시아 선교대회에서 통역자를 곁에 두고 목이 터져라 복음을 외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그의 이름은 열정이었다”고 회고했다.

한 목사는 또 “암투병 중에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며 강단을 지키셨다. 자신의 몸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고, 주의 일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시



퀸즈장로교회에서 김성국 담임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열렸다. ©교회 측 제공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교회 측 제공

대의 종이었다”고 덧붙였다.

장남 김정환 목사는 조사에서 “아버지는 강단 밖에서도 동일한 분이셨다”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목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셨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였다”고 눈물로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늘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믿음과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성국 목사는 퀸즈장로교회를 다민족 교회로 세워 영어관·중국어·관·리시아어권 회중이 함께 예배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으로 사역하며 기독교 언론과 신학 교육에도 헌신했다.

예배는 이준호 목사의 광고와 이용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용걸 목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가 유가족과 성도 위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축도했다.

이날의 천국환송예배는 한 목회자가 평생 불태운 복음의 열정을 기리는 자리가 됐다. 이날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평소 헌신된 사역을 펼치던 고인이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힘을 다하던 모습과 늘 모든 이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던 생전 모습들을 회상하며 그의 삶을 깊이 있게 추모했다.

김대원 기자

미주복음방송, ‘박해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생방송’ 진행

미주복음방송(GBC)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박해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베이징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와 지도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그 가족 및 중국 가정교회의 생존과 복음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시온교회는 2007년 김명일 목사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 중국 복음주의 가정교회로, 40개 도시에 100여 개의 개척 교회와 약 1만여 명의 성도가 활동해 왔다. 2018년 강제 폐쇄 조치 이후에도 온라인과 소그룹을 기반으로 교회를 재구성하며 중국 내 지하교회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국 당국은 시온교회 지도자 38명을 전국 단위로 체포했다. 이 중 22명(남성 9명, 여성 13명)이 현재까지 광시성 베이하이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며, 변호사 접견이 제한된 상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통제 강화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적용이 집중된 이번 조치는 중국 기독교계와 국제 종교 자유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 가정교회는 수년간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온라인 채널과 소규모 모임으로 예배와 제자 훈련을 지속해 왔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도수와

선교 영향력은 확대되었으며, 시온교회는 중국 내부 뿐 아니라 무슬림권 선교에도 적극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방송에는 김명일 목사의 배우자인 안나 류 사모가 전 일정에 출연해, 현장 상황과 가족·성도들의 신앙적 버팀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시온교회와 동역해 온 목회자, 선교사,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 등도 출연해 중국 가정교회의 실제적 고난, 영적 현실, 국제 교회의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모금은 법률 소송 및 석방 캠페인 / 억류된 목회자 대체 사역자 양성과 피난 지원 /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 / 중국 및 무슬림권 선교 지속 지원,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단순 구호 활동을 넘어, 중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적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돕는 신학적·사적 연대의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선교 현장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많은 것을 삼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중국 교회가 순교를 각오하며 치르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세계 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번 특별방송은 그 숨겨진 현실을 처음으로 열어 보이는 문이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며, 고난받는 지체들과 한 몸으로 서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故 김은경 선교사 천국환송예배, 11월 8일 베델교회에서

SWM 선교회 미국대표인
김진영 선교사의 아내

故 김은경 선교사 천국환송예배가 11월 8일 오전 10시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린다. SWM(Silk Wave Mission) 선교회 미국대표인 김진영 선교사의 아내였던故 김은경 선교사 1988년 김진영 선교사와 결혼 후, 1992년 선교사로 파송 받아 1994년 러시아 선교를 시작해 이슬람권 선교를 섬겨왔다. 2008년 식도암 3기를 진단 받은 이후 투병 중에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을 이슬람권(튀르키예)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운동으로 이끄는 귀한 사역을 섬겼다.

병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지난 10월 26일 오후 4시 45분,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 240장을 들으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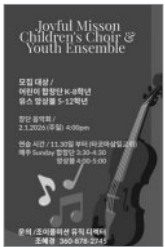
김은경 선교사가 하늘의 부름을 받기 전 간곡히 부탁한 대로, 천국환송예배에는 교회와 기관의 화환은 받지 않으며 성도 여러분의 마음(조의금)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교회 재건을 위한 헌금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오른쪽부터)실크웨이브미션 대표 김진영 선교사와 아내故 김은경 선교사 ©주최 측 제공

조이플 선교회, 어린이 선교합창단 및 유스 앙상블 단원 모집



조이플 선교회(Joyful Mission, 대표 장현자 목사)가 ‘어린이 선교합창단(Children's Choir)’과 ‘유스 앙상블(Youth Ensemble)’ 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된 단원들은 2026년 2월 1일(주일) 오후 4시, 타코마 삼일교회(Tacoma Trinity Church)에서 열릴 창단 음악회에서 연주하게 된다.

조이플 선교회는 어린이 선교 합창단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 정체성을 세우고, 차세대 예배자 양성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다.

장현자 목사는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한다”며 “부모님들과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원 모집 대상은 어린이 선교 합창단의 경우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유스 앙상블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연습은 2025년 11월 30일(주)

일부터 타코마 삼일교회에서 시작된다.

합창단은 매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앙상블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습이 진행된다.

조이플 미션 뮤직 디렉터 조혜경은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에 지역 교회와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는 조혜경(360-878-2745) 조이플 미션 뮤직 디렉터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2억 미전도종족 복음화, 한국교회의 ‘기도·보내는 사역·파트너십’ 절실”

제이콥 보스 IMB 부총재 “한국교회, 새로운 젊은 세대 일으켜야”

“전 세계 2억이 넘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와 파송, 파트너십에 대한 초점을 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과업을 위해 놀라운 위치에 있습니다.”

‘UPG & UUPG 선교’(마태복음 24:14)를 주제로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제2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이 진행 중이다. 둘째 날인 4일 오전, 제이콥 보스(Jacob Boss)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부총재는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미전도종족(UPG), 미접촉종족(UUPG)의 현황을 소개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 보내는 사역, 파트너십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보스 부총재는 “2025년 9월 현재, 그리스도인과 교회, 성경이 없는 종족 그룹이 276개 1억 8,500만 명, 복음화율이 2% 이내이고 지난 2년간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종족 그룹이 6,668개 34억 4,000만 명, 미접촉종족(UUPG)이 3,155개 2억 9,100만 명,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미전도종족(Frontier People Groups)이 4,852개 28억 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

어 “전 세계에서 미전도종족인 12,353개 종족 그룹의 92-96%를 차지하는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매초 172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스 부총재는 미전도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초기에 선교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미전도종족에게 보내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시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선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국제화 현상, 도시화 현상, 기술 발달, 정치적 불안정 등 변화하는 4가지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이러한 변화로 미전도종족이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 이웃으로 살고 있다. 더 이상 전방선교를 (미전도종족이 사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이콥 보스 IMB 부총재가 키노트 스피치를 전하고 있다.

보스 부총재는 이와 함께 “전 세계 50억이 넘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경 등 디지털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단일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며 “IMB는 인터넷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인터넷이 (전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충만하고 신학적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이 좋은 기술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젊은이들이 창의성과 기술, K-컬처 등을 통해 미전도종족과 소통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대했다.

이날 보스 부총재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 물 부족 현상, 전쟁 등으로 더 많은 미전도종족이 이동하고 있으며, 복음도 퍼져나가고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 상황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혼란의 기회를 선교의 기회로 만드신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 가운데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한국교회가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 파트너십을 통해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미전도종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폴 치트우드 IMB 총재가 인사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국 민족은 고난을 아는 민족”이라며 “지금 이 시기가말로 새로운 변화와 훈련, 동원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2억이 넘는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남겨둘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하셔서 글로벌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교회가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기도, 보내는 사역, 파트너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보스 부총재는 “첫 번째, 기도해 달라. 모든 선교의

중요한 운동은 기도를 통해 시작됐다. 우리는 미전도종족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며 “또 새로운 세대의 한국 선교 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보내는 사역을 해달라.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한 교회와 단체가 하기에 과업이 너무 크므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인도교회, 아프리카교회, 미국교회 등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폴 치트우드(Paul Chitwood) IMB 총재는 오전 일정이 끝나고 점심 식사 전 참석자들과 나눈 인사에서 “한국교회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가는 우리의 부담과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제23회 한선지포 열려... “경계를 넘어 미전도종족 선교로”

‘미전도종족 선교 재조명’ 주제로 3~6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

한국선교 지도자들과 한국교회가 복음화율이 2% 이내이며, 자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교회 사역자가 없어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미전도종족(UPG, Unreached People Group)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접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미접촉종족(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을 대상으로 한 전방개척선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가평 지구촌교회 필그림하우스에서는 ‘UPG & UUPG 선교’(마태복음 24:14)라는 주제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는 제2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이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는 UPG, UUPG 복음화를 위한 FTT(Finishing The Task)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리더십인 폴 치트우드(Paul

Chitwood) IMB 총재를 비롯해, 제이콥 보스(Jacob Boss) IMB 부총재, 그레그 맨(Greg Mann)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 자로드 데이비스(Jarod Davis) 세계화전략 책임자, 밴스 워튼(Vance Worton) 아시아태평양 선교연구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4일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또 4일 오후 한국 COME선교회, HOPE선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해외선교회(FMB),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OMC)의 UPG 선교모델을 소개하고, 각 교단과 단체가 UPG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3일 선교단체 대표와 실무자, 한국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담당자, 선교사 등 120여 명이 이 참여한 가운데 드려진 개회예배는 한선지포 준비위원장인 송재홍 목사(기성 해외선교위원회 선교국장)의 사회로 송영광 선교사(HOPE)가 대표기도를 하고, 이길재 선교사(더 스토리 대표)가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길’(행

10:17-23)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길재 선교사는 이날 “도종환의 시 ‘담쟁이’의 내용처럼, 절망의 벽을 타고 복음으로 푸르게 뒤덮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삶을 살아왔던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 넣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한국) 땅을 너무 사랑하신 것”이라며, “남겨진 미전도종족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전도종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 뜨겁게 반응하는 이 자리가 되고, 경계를 뛰어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창식 목사(DMS 부이사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KWMA 법인이사인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저녁 예루살렘동 2층 은사식당에서 열린 웰컴다너 시간에는 KWMA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의 환영사와 IMB 부총재 제이콥 보스의 인사가 있었다.

강대홍 사무총장은 “전 세계 선교단체 가운데 닫힌 지역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곳이 미국 남침례교라고 생각한다”며 “남침례교회가 1년에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쓰는 돈이 한국 돈으로 2,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 미전도종족을 사역하지 않으면 선교사로 뽑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북한구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전부 가라앉고 있는데, 혼자 올라가는 곳이 남침례교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사무총장은 “이번 3박 4일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선교가 건강하게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다”며 “바라기는, 열린 지역에는 선교사를 그만 보내고, 미전도종족에 집중함으로써 한국교회 선교가 전략적으로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이콥 보스 부총재는 “저희를 초청해



3일 오후 제23회 한선지포 개회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이지희 기자

주셔서 영광”이라며 “저희는 오늘 자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보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넘어야 할 경계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이데를 위해 세우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보스 부총재는 “저희가 (미전도종족에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응답할 기회를 얻기 바란다”며 “저희가 미래를 향해 갈 때, 모든 경계를 함께 넘기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후 KWMA 운영이사 박정곤 목사(거제 고현교회)의 식사 기도로 만찬이 진행됐다.

첫날 저녁예배는 한총회 목사(TIM 선교회 본부장)의 사회로 정성현 목사(MCF 대표)가 대표기도를 하고, 서문호 선교사가 특송을 했다.

KWMA 운영이사 김형배 목사(기성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서산성결교회)는 ‘바울의 선교’(고전 2:1-5)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바울과 같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선교,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선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선교 현장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확장시키는 교회와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해드립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메일 | art@miral.org

전화 | 02-6411-3649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인도 목사 “수감 중 또 다른 목사와 만나 신앙 회복”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 맞아 간증 전해

인도의 한 목사가 투옥 중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 또 다른 목사를 같은 감옥에 보내어 그를 격려하게 하셨다는 간증이 전해졌다. 이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순교자의 소리’(VOM) 부회장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토드 넬튼(Todd Nettleton)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을 맞아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넬튼은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자를 마치 우리가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야 한다”며 “만약 내가 감옥에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돌봐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며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는 기독교인들을 만났다. 현

지 교인들은 폭력이나 집 파괴 위협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네튼은 전했다.

특히 그가 만난 한 인도 목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목사는 4개월 동안 투옥되었으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단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차 낙담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저를 격려해줄 또 다른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놀랍게도 며칠 뒤 또 한 명의 목사가 체포되어 그의 맞은편 침상에 배치되었다.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새로 온 목사가 ‘끝까지 버티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격려하자, 그는 다시금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넬튼은 이 일화를 전하며 “고난 중에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두 목사는 현재 모두 석방된 상태다. 넬튼은 “핍박, 병, 실직, 어떤 어려움 속



©pixabay

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며 “사람들이 치유되거나 기도 응답을 직접 경험하면, 그 어떤 박해로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도는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발표한 2025 세계 박해지수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11위로 꼽혔다. 인도 내 12개 주에서는 개종 금지법이 시행 중이며, 힌두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공동체, 극단주

의자들로부터 강요와 폭력을 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3억8천만 명 이상, 즉 7명 중 1명이 신앙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오픈도어는 보고했다.

VOM은 올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교회와 가정, 성경공부 모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무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넬튼은 “수천 개의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나는 모습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로잔 ‘글로벌 보이ς 리포트’... “협력·제자훈련·디지털 선교가 미래 열쇠”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시각을 담은 ‘글로벌 보이ς 리포트(Global Voices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교회의 현재와 선교의 미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폭넓게 조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로잔운동 산하 새 부서인 ‘라이트’(LIGHT, Lausanne Insights for Global Horizons and Trends)가 주도했으며 119개국의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시장 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1,030명의 리더가 참여했다.

보고서는 미래 세대의 Z세대를 포함한 젊은 응답자들은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복음전파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다수의 리더들은 교회가 급변하는 문화·기술적 환경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히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데이터와 실제 현장의 통찰을 결합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요인은 ‘협력과 파트너십’이었다. 한 남아시아 응답자는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깊은 제자훈련,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 활용, 직장·지역, 청년 참여가 글로벌 선교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문화적 압력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제자훈련과 디지털 도구를 통한 복음 전파, 소통,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장(시장)을 복음이 삶과 만나는 전략적 현장으로 인식했으며, 젊은 세대를 ‘미래의 리더’가 아닌 ‘오늘의 선교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응답자는 “오늘날 젊은이는 목사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제자훈련을 받는다. 교회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95%는 디지털 공간을 선교지로 인정하며, 교회가 온라인 영역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많은 이들이 “교회가 온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미 디지털 신앙 나눔에 참여 중이며, 참여율은 북미 95%, 아프리카 93%,



©pixabay

동·동남아시아 84%로 나타났다.

한 아프리카 리더는 “디지털 공간은 새로운 마을 광장이다. 교회가 그곳에 없다면, 삶이 일어나는 현장에 부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의 공적 신뢰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아프리카 7.4점, 남아시아 7.1점, 라틴아메리카 6.6점, 동·동남아시아 5.7점, 북미 4.5점, 유럽·오세아니아 3.9점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리더들은 외부적 요인으로 세속화, 정치·사회적 양극화, 사회 전반의 신뢰 약화, 내부적 요인으로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패와 신뢰 상실을 교회의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또한 남아시아의 종교적 박해, 유럽과 아시아·라틴아메리카의 젠더성 문제 논쟁이 선교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 세계 교회 지도자 중 단 30%만이 “대사명(Great Commission)이 의미 있게 진전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절반가량은 “자국의 일반 성도들에게는 대사명이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답해, 리더십 의도와 실제 현장 간 괴리를 드러냈다.

또한 교회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의 윤리적·신학적 의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체성·젠더·정신 건강과 같은 문화적 질문에 대해서도 신학적 분별력과 목회적 공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이주 증가가 새로운 선교 기회를 열었으나, 많은 교회가 여전히 문화 간 소통 능력과 전략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젊은 리더들은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교회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전 세계 교회 안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감각과 문화적 통찰, 신학적 토대를 갖춘 교회가 미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에서 가장 신앙의 자유 높은 주는 앨라배마... 최하인 주는?

미국 내 주(州)별 신앙 자유 환경을 비교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는 최근 ‘2025 신앙과 자유 지수(Faith and Freedom Index)’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주가 종교 기반 비영리단체의 자유를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0~100점 척도로 평가했다. 평가는 △종교의 자유 점수와 △규제의 자유 점수 두 항목을 종합해 산출됐다.

나파법률연구소 콘텐츠 디렉터 프랭크 데비토(Frank DeVito) 선임 고문은 “이 지수는 입법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보호를 강화하거나 유해한 법을 폐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 점수는 △주 헌법 내 종교 자유 보장 조항 존재 여부 △종교 자유 회복법(RFRA) 제정 여부 △비영리 단체의 공공 프로그램 운영 시 종교 자유 보장 정도 △신앙 기반 고용주의 권리 △비



©Unsplash/Raúl Nájera

상사태 시 종교활동 보호 여부 △블레인 수정조항(Blaine Amendment)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앨라배마(86%)와 캔자스(79%)가 종교 자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미시시피(67%), 조지아(67%), 플로리다(63%)가 상위권에 올랐다. 연구소는 “앨라배마와 캔자스는 신앙 기반 비영리단체를 위한 모범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시간(22%), 버몬트(23%), 델라웨어(25%), 워싱턴(26%), 메릴랜드(27%)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나파법률연구소는 미시간과 워싱턴을 “신앙 기반 비영리단체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며 심지어 적대적인 주”로 지목했다.

데비토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은 강력한 주 차원의 보호가 없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이미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법정 다툼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자유 점수에서는 인디애나(82%)와 몬테나(8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아이오와(79%), 애리조나(77%), 텍사스와 와이오밍(이상 76%)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일리노이(40%), 미시간(45%), 매사추세츠(48%), 사우스다코타(49%), 워싱턴(49%)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항목은 △비영리 종교단체 법 △주요 법인 활동의 사전 통지 및 동의 요건

△이사 윤리 기준 △가부 등록 및 감사 규정 △법인세·판매세·재산세 면제 여부 등 여러 요소로 평가됐다.

종합 점수에서 앨라배마(72%)가 1위를 차지했으며, 캔자스(69%), 인디애나(68%), 텍사스(65%), 미시시피(63%)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앨라배마에 대해 “헌법상 종교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 활동에 정부가 부담을 줄 경우 ‘엄격심사(strict scrutiny)’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방 501(c)(3) 단체에는 자동적으로 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미시간(31%), 워싱턴(35%), 매사추세츠(37%), 일리노이·메릴랜드·웨스트버지니아(각 38%)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특히 미시간의 경우 “종교 단체의 주정부 자금 수령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블레인 수정조항”과 “공공시설 및 고용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에 종교 단체에 대한 실질적 예외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Maeil
Maeil Health Nutrition

AUSTRALIFE®

**맛있는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
드셔보시면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1 **속편한 호주산 산양유**
국내 최다* 함유



2 **한끼 영양 설계에**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AUSTRALIFE®



◀ 보러가기



무료 제품 상담 및 할인 금액 주문 가능!

☎ 전화 주문 가능 (무료상담) | 080-860-1539 (내선 2번)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

한동대, 202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로 문화 대사 역할 수행

8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28명, 경주에서 글로벌 문화 교류에 기여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자원봉사로 참여해 성공적인 문화 대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8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28명이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며, 각국 문화를 소개하고 언어 장벽을 넘는 데 기여했다.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한국이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1개 회

원국의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약 6,000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국내 13개 대학에서 총 15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한동대는 페루, 필리핀, 중국, 일본,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출신의 학생 28명을 자원봉사로 파견하며, 가장 다양한 국적의 봉사단을 구성했다. 자원봉사단은 경주의 주요 관광지인 첨성대, 황리단길, 산죽한옥마을 등지에서 통역 서비스와 관광 안내, 메뉴 설명 및 주문 지원 등을 담당했다. 특히 정상단과 언론인들이 경주의 문화유산을 방문할 때, 자

원봉사자들은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문화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번 자원봉사단은 국제어문학부, 글로벌리더십학부, AI융합학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을 살려 행사에 참여하며, APEC 참석자들에게 문화적 이해를 돕는 역할을 했다.

방청록 한동대 국제화부총장은 "한동대에서 파견한 8개국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강점을 발휘하며 행사 곳곳에서 활약했다"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APEC이라는 국제 행사에 적합한 다채로운 문



한동대 APEC 자원봉사단 단체 사진. ©한동대

화 교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스민 학생(AI융



한동대 자원봉사자들이 황리단길에서 방문객들을 안내 중이다. ©한동대

합학부 2학년, 미국)은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행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대사로 활동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지동 기자

성결대·한세대 봉사단과 시민단체, 환경정화 활동 진행



성결대·한세대 안양지구시민연합 환경정화 활동 참석자 기념 사진. ©성결대

안양 1번가, 청년과 시민들의 손길로 깨끗해져

경기도 안양시 중심 상권인 안양 1번가 일대가 청년과 시민들의 힘으로 깨끗해졌다.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사회봉사센터 코어봉사단과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 봉사단, 지역 시민단체인 안양지구시민연합이 협력해 최근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주도형 환경의식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거리 청소와 앞서, 봉사자

들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환경문제와 시민 실천'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받으며 ▲기후변화와 생활 속 실천 ▲쓰레기 배출 실태 ▲분리배출 방법 ▲환경정화 활동의 사회적 가치 등을 학습했다.

교육을 마친 봉사자들은 안양역 인근에서 안양 1번가 먹자골목과 중앙시장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환경정화 활

동을 펼쳤다. 약 25명의 봉사자들이 2시간 동안 총 20kg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특히 담배꽂초와 플라스틱 용품 등 생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수거됐다.

성결대학교 코어봉사단 관계자는 "지역과 상생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결대 코어봉사단 소속 김재영 학생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며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가 도

시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점을 많은 시민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활동을 공동 주관한 안양지구시민연합 관계자는 "특히 대학과 시민단체의 협력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단순한 청소 봉사를 넘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청년 주도의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봉사자들의 높은 참여 만족도에 따라 향후 안양시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도 기대된다. 장지동 기자

한신대학교, 제21대 총장에 강성영 박사 취임

"AI 융복합 혁신과 평화교육으로 창학 100주년 향한 미래 비전 실현"

한신대학교는 최근 제21대 총장으로 강성영 박사가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서울캠퍼스 예배당에서 열렸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관계자와 학교법인 한신학원 임원진,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강성영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VISION 2040'을 발표했다. 그는 AI 융복합 교육 혁신, 인

간 중심의 AX(AI Transformation) 기술 발전 선도, 평화교육 실천, 세계적 신학교 재건을 4대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창학 100주년을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세우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선도하는 신학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한신대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학의 신장적·교육적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며 "AI 시대에 걸맞은 융복합 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신학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신대학교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창조적 학문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으로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세계 속의 신학교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영 총장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교육과 목회 현장에서 활동해온 학자다. 그는 인공지능과 인문학, 신학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연구해왔으며, 대학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 구축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한신대학교는 강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VISION 2040' 전략을 중심으로 AI 융복합 인재 양성, 평화교육의 국제화, 신학 교육의 세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취임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한신대

계명대 간호대학,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무료 건강검진 및 웰스페어 개최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웰스페어(Health Fair)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간호대학 목회간호위원회가 주관하고, (사)계명1%사랑나누기와 한국목회간호선교협회가 후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명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이 가진 의료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글로벌 공동체에 환원하고, 1차 예방 중심의 사회공헌 모델을 구현하고자 했다.

1996년 설립된 계명대 간호대학 목회간호위원회는 한국 최초의 목회간호위원회로,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적 사랑 실천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목회간호의 개념은 미국 아이오와 메소디스트 목회간호센터의 마블 커시(Marbel Kirsey)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후 국내 간호교육과 지역사회 돌봄에 접목돼 발

전해왔다. 위원회는 빈곤층과 소외계층, 교회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검진, 심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신앙과 돌봄이 결합된 간호의 가치를 실천해왔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목회간호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인바디 및 체지방 검사,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기본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간호대학 재학생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유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등 실습 경험을 나누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한국목회간호선교협회도 함께 참여해 현장 목회간호사들을 지원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의료와 신앙이 결합된 현장 중심의 간호 활동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프로그램이 대학·민간·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범적 공공의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계명대 간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건강검진과 웰스페어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계명대 간호학과 서은혜 교수, 이은숙 교수(목회간호위원장), 조미경 교수. ©계명대

계명대는 앞으로도 목회간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과 국제적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간호대학의 전문성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돌봄을 전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10월 31일, 세상을 다시 바꾼 날: 루터의 믿음이 남긴 500년의 유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알렉스 맥팔랜드 박사의 기고글인 ‘10월 31일: 다시 한 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날’(October 31: The day that could change the world all over again)을 최근 게재했다.

알렉스 맥팔랜드 박사는 청소년, 종교, 그리고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2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으며 미국가족라디오네트워크(American Family Radio Network) 200여 개 방송국을 통해 매일 생방송으로 출연하고 있다. 그는 콜로라도 우들랜드파크(Charis Bible College)의 세계관 담당 디렉터이자, TV 방송 〈Truth and Liberty〉의 공동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10월 31일이라는 날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호박, 분장, 사탕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할로윈이 문화적 상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날은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꾼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95개 논제(Theses)’라는 문서를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내걸었다.

당시 루터의 행동은 작고 국지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남용을 지적하고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행동이었으며, 훗날 역사가들이 ‘종교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이라 부르게 될 거대한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이 운동은 유럽과 전 세계

의 교회를 뒤흔들었고, 교육, 정치, 경제,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삶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루터와 함께한 다른 개혁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발시켰고,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자치(Self-government)’라는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인류사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순간은 거의 없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물을 수 있다: “그 믿음의 ‘재발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재발견이 세상을 바꾼 이유

1500년대 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었던 로마 가톨릭교회는 정치와 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평신도들은 미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구원은 헌금이나 의식, 도덕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나 루터의 영적 각성은 반항심이 아니라 성경 읽기에서 비롯된 깨달음이었다. 그는 하박국과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충격적인 진리를 발견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계사였다.

그 단순한 진리가 불길처럼 번졌다. 루터는 글을 쓰고, 설교하며, 성경을 평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곧 유럽 전역에서 장 칼뱅, 율리히 츠빙글리, 메노 시몬스, 윌리엄 틴데일과 같은 인물들이 이 운동에 합류했다. 그들은 “믿음, 은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외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종교개혁이 만든 현대 세계

종교개혁의 파급력은 신학에만 머물지 않았다. 성경과 교육을 대중의 손에 쥐어준 일은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했다. 당시 막 발명된 인쇄기술은 아이디어를 놀라운 속도로 확산시켜, 역사가들이 “최초의 정보 혁명”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종교개혁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가 되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책임을 진다는 신념은,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폭정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의 의미도 새로워졌다. 개혁자들은 농부이든 예술가이든 통치자이든 모든 정당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고 가르쳤다. 이튼바 ‘프로테스탄트 윤리(Protestant Work Ethic)’는 훗날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한 수도사의 신앙의 위기가 서구 세계를 재정의한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알렉스 맥팔랜드 박사. ©CP

◆오늘날,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한 이유

오늘의 서구는 놀라울 정도의 자유와 기술, 정보력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 혼란과 불안, 고립감은 팬데믹처럼 퍼지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노력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와 닮았다. 물질의 풍요 속 영혼의 공허, 지식은 넘치지만 지혜는 부족, 힘은 커졌지만 평화는 사라진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의 유산이 여전히 중요하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한 사건,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깨어짐을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전한다. 인간은 용서와 목적, 자신을 넘어선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분열, 냉소, 도덕적 혼란은 기술이나 정치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제도나 정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루터의 용기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며,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유명한 말인 “나는 여기 서 있다. 달리 할 수 없다.”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린다.

이번 10월 31일, 할로윈의 소란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 한 사람의 ‘은혜의 체험’이 어떻게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세상에 문해력, 자유, 양심을 선물했다. 그날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희망의 시작점이었다.

500년 전 믿음의 재발견이 역사를 바꿨다. 오늘, 불안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그것은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최승연 기자

“정의, 긍휼, 겸손으로 걷는 길: 혼란한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법”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은 제프 파운틴 작가(사진)의 기고글인 ‘정의와 긍휼, 그리고 겸손의 필요성’(The need for justice, mercy, and humility)을 1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제프 파운틴 작가는 슈만 유럽 연구 센터(Schuman Centre for European Studies)의 창립자이며 1990년부터 YWAM 유럽의 이사로 재직하며,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활동해왔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정치적 혼란과 문화적 분열의 시대에,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지혜로운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이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최근 필자는 브뤼셀에서 젊은 전문가들과 이 주제를 함께 고민했다.

우리는 먼저 성경 속 미가 선지자의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이 세 가지 덕목, 정의(Justice), 긍휼(Mercy), 겸손(Humility)은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정의를 행하라: 진리에 뿌리내린 삶

정의는 진리에서 시작된다. 가짜 뉴스와 조작이 만연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사실적 진리와 도덕적 진리 모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내 주장을 불리하게 만들지라도, 진리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 단지 유리하거나 인기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보게 한다. 정의는 세상을 “우리 vs. 그들”로 나누는 부족 본능을 거부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신앙을 무기화하는 행위를 거절한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과 반쪽짜리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진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정의는 공동선, 즉 모든 사람의 선(善)을 추구

한다. 특히 가장 약하고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해 선이 추구된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다. 정의는 관계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 곧 샬롬(shalom)을 세우는 것이다. 정의는 우리 시대의 분노와 소란 속에서 조용한 혁명처럼 존재하며 듣고, 분별하며, 치유한다.

◆긍휼을 사랑하라: 사랑에 뿌리내린 태도

긍휼은 깨어진 세상 속 사랑의 자세다. 긍휼은 우리 모두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긍휼은 인내와 용서, 공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긍휼은 정죄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선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는 긍휼이란 우리가 “타자(他者)”로 여기는 이들, 심지어 적대자에게조차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긍휼은 부족과 이념을 초월하며, 경계를 넘어 상처를 싸매고 존엄을 회복시킨다. 또한 긍휼은 정치적 냉소주의를 거부한다. 모든 것이 권력 게임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긍휼은 우리에게 자비가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상기시킨다. 긍휼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식탁 위에서, 정치 토론 중에, 그리고 SNS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긍휼은 상대를 모욕하거나 왜곡하거나 비인간화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 긍휼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를 전쟁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자유의 대상으로 대하게 한다. 긍휼은 은혜로 양념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겸손히 행하라: 소망에 뿌리내린 믿음

겸손은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보기 드문 덕목이다. 분노와 자기 과시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겸손히 걷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다. 겸손은 우리가 세상의 구세주가 아님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한다. 겸손은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은혜의 학교에서 배우는 제자임을 깨닫게 한다.

겸손은 정치 운동이나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겸손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겸손은 듣기 전에 말하지 않고, 이해하기 전에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한다. 결국 겸손은 희망의 행위다.

겸손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음을 믿는다.

정의가 진리 위에, 긍휼이 사랑 위에 서 있다면, 겸손은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조용한 희망이며 진리가 승리하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진리·사랑·소망 위의 정의·긍휼·겸손

정의, 긍휼, 겸손은 각각 진리, 사랑, 희망에 뿌리를 둔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약하며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하고 분열을 낳는다. 그리고 이 둘이 없는 희망은 공허한 낙관주의에 불과하다. 진리는 거짓을 대면하되, 사랑으로 말한다. 사랑은 다리를 놓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희망은 그 둘을 지탱하며,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는 제자들의 존재를 이렇게 비유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누룩이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낸다. 빛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길을 비춘다.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게 한다.

문화전쟁의 시대, 신자는 도피도 지배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 바로 “신실한 소수로서의 신실한 존재감(Faithful Presence)”이다. 생각해봐라. 소금, 빛, 누룩은 각각 양은 적지만 전체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바로 그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금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표 선택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이창우 장로 “은혜라 쓰고 빛이라 읽는다”

다니엘기도회 3일차 집회서 간증

“은혜라 쓰고 빛이라 읽는다.”

이 한 문장은 이창우 장로(선한목자병원 병원장, 군세퍼드 재단 이사)의 인생을 가장 정확히 요약한다. 의사이자 선교사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진 빛을 갚는 여정’이라 고백한다.

◆**시력을 잃은 어머니의 사랑, ‘은혜의 시작’**

그의 생명은 어머니의 희생에서 비롯됐다. 임신 중독증으로 시력을 잃은 어머니는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종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에 주신 생명이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 말은 훗날 그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다.

◆**대학 시절 서원, 그리고 잊혀진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대학 2학년 시절, CCC 수련회에서 그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시간의 심필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미국 유학과 IMF 외환위기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통장에 남은 돈

은 고작 6만 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장우야, 너는 잊었지만 나는 네 서원을 기억한다.”

이후 하버드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이 지급되는 기적이 일어나며, 그는 다시 ‘은혜의 부르심을’ 붙잡게 되었다.

◆미안마·라오스·인도네시아… 흘러가는 은혜의 현장

하나님은 그를 고통의 현장으로 보내셨다. 미안마에서 다리가 휘어 버려진 소녀 ‘친리시’를 만났을 때, 모든 병원이 포기한 아이를 그는 “마지막 의사의” 마음으로 수술했다.

“주님,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소녀는 걸음을 되찾았고, 그 현장은 곧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

라오스의 청년 ‘조이’ 역시 심장병으로 죽음 직전이었으나, 수술 도중 멈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날 수술실은 병원이 아니라 예배당이였다.” 이 창우 장로는 그때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힘’임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쓰나미가 휩쓸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에서는 기적처럼 아홉 살자가 발견되었다. 그는 “은혜는 담을 넘는다”며, 종교와 국경을 넘어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 “고통의 자리로 가라” 은혜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한다. “고통의 자리로 가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다.” 그 말씀처럼 현재 이창우 장로는 24개 국 21곳의 의료선교 현황을 운영하며, 두 아들 사무엘·다니엘에게 두 소 사명을 이어주고 있다.

◆ “은혜는 흐름 때 위대해진다”

간증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누군가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 빗을 사랑으로 갚을 차례입니다.”

이창우 장로의 인생은 한 의사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는 오늘도 조용히 말한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흐름 때 가장 위대해집니다”

김진영 기자



11월 3일, 다니엘기도회 3일차 집회에서 간증하고 있는 이창우 장로 ©영상 캡처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마르틴 루터가 남긴 믿음의 토대”



브루넨스키 박사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있는 데저트 힐스 성경 교회의 목사 겸 교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그것은 곧 종교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의 불씨가 되었다. 루터는 정치적 혁명이나 영적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indulgence)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고자 했을 뿐이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는 처음부터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 세속적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세 시대, 교회는 곧 국가였기에 신학적 기준뿐 아니라 시민적 기준도 시행했다.

면죄부는 원래 죄수들이 국가에 대한 범죄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였다. 이 제도는 재정을 늘리고 형벌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장치였으며 처음에는 영적 유익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루터는 참된 구원과 죄 사함은 “씩씩한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벧전 1:18-19)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면죄부 판매를 단호히 비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 결과, 교황청의 재정 수입을 건드린 이 신학적 주장 하나가 거대한 역적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복음의 중심에 선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핵심에는 바로 복음(Gospel)이 있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은 다섯 가지 핵심 원리를 세웠다. 바로 '오직'(sola) 시리즈로 불리는 '다섯 솔라(Five Solas)'이다.

첫째는 Sola Gratia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둘째는 Sola Fide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로는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개혁자들은 철학 체계를 새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구원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탐구했다. 그리고 이 모든 '솔라들'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가 바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였다.

루터와 개혁자들의 논쟁의 근거는 인간의 전통, 교회의 교리, 혹은 교황의 칙령이 아니라 오직 성경 자체였다.

◆오직 성경 — 급진적이지만 영원한 진리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는 당시에도 급진적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문제는 성경의 필요성(necessity)이 아니라, 충분성(sufficiency)에 있었다. "하나님, 구원, 경건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 교황의 명령, 혹은 다른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약속한 일을 수행할 능력을 진정 믿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 - 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뺨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고립사회와 링크 워커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지난주 언론의 초점은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맞춰졌다. 올해의 주제는 '연결, 혁신, 번영'이었다. 각국 정상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열린 토론을 벌였고, 주요 의제는 마중 정상회담, 관세 협상, 그리고 공급망 재편이었다. 미국 언론

은 "트럼프는 졌고, 시진핑이 이겼다"고 평했다. 우리에게도 경제적 협상 결과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일이다. 이는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 의제들보다 국민의 일상에 더 직접적인 관심사는 물가, 주거,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일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10월 31일 KBS '추석 60분'이 방영한 '고립사' 편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방송은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표현을 썼다. 단순

히 혼자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완전히 끊긴 채 방치된 죽음이기 때문이다. 방송이 공개한 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사망 후 8개월 만에 발견된 고립사자의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바닥을 덮고 있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라기보다, 버려진 삶의 잔해처럼 느껴졌다. 화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 나왔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은 원인을 실직, 이혼, 질병, 경제적 파탄, 사회적 단절, SNS 의존, 그리

고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 등으로 진단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 끊긴 순간에 개입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의 부재였다.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사회가 그 고립을 방지할 때 비극은 현실이 된다. 이 문제의 대안을 찾아 영국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은 '링크 워커(Link Work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가 자신의 어려움을 신고하면, 링크 워커가 즉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준다. 건강 문제는 의사와, 채무 문제는 재정 전문가와, 외로움은 공동체나 취미 모임과 연결한다. 즉,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연결이 고립을 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한국 사회도 이미 심각한 고립 상태로

들어섰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의 약 5%, 즉 50만 명이 극도의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취업난, 인간관계 단절, 불안정한 소득, 열악한 주거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노년층이다.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독립, 건강 저하로 사회관계망이 급속히 축소된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생의 의욕 상실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연결의 위기'에 놓여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립사 위험 가구도 함께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조기 발굴과 예방 시스템이다.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복지 인력,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촘촘한 안부 확인망을 형성해야 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고립가구 발굴 프로그램, 관계망 회복 프로젝트 등도 더 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잇는 마음이다. 영국의 '링크 워커'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는 사람, 관계의 끈을 다시 묶어 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 이 역할을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가 맡는다면 사회적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종교가 단순히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인간의 외로움과 고립을 돌보는 '사회적 링크'가 된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링크 워커' 몇 명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다가가 손 내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연결의 손길이 모여 고립사 없는 사회,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에큐메니칼 성경관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3)

안승오 교수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구원 개념의 확대로 인한
선교의 효율성 약화 가능성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제하시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이더(Ronald Sider)가 구원에 관한 키텔의 정의에 근거하여 말한 대로 "신약에서 Soteria는 지상적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헬라어적 이해에 있어서처럼 영과 육의 복지나 건강이 아니다. 그것은 ... 지상적 해방도 아니다. ...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언급한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동시에 물질문제, 정치문제, 소외문제 등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억압을 받

고, 소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 7:13)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은 해방신학 등의 영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구성되는 구원개념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다. 에큐메니칼 구원 개념을 다룬 방북은 '경제 정의', '정치적 억압', '인간의 소외', 그리고 '인격적 삶의 좌절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으로 정의하면서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개인들을 모든 죄와 그것의 결과들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방북은 모든 억압, 소외, 착취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서구 정도의 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방북은 구원의 본질인

영적 차원의 구원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종합행복세트 구원 이해로 확대하였다. 선교는 구원을 전하는 활동인데, 구원의 개념이 에큐메니칼 진영처럼 종합행복세트적인 구원 개념으로 변경되면 세상의 행복을 위한 모든 활동이 선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세상의 정치단체, 인권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등이 하는 일도 선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일을 선교에 포함시키면서 선교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선교는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스티븐 니일은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 것도 선교가 아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이다.

한 어린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작은 불씨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대표



세상에서는 종종 화려하고 즉각적인 성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농사와 같다. 당장 눈앞에서 아이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의 작은 가르침과 사랑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언젠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피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존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교회학교 김 선생님 이야기다. 김 선생님은 늘 자신의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다. 성경 지식이 깊지 않은 것 같고, 아이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없다고 느꼈다. 그저 주일마다 아이들 옆에 앉아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함께 찬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주며 살뜰히 보살펴주실 뿐이었다. 특히 반에서 가장 장난기 많고 부산스러웠던 준영이에게는 늘 잔소리하기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준영아,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러난 준영이는 들은 척만 하였다. 세월이 흘러 김 선생님은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준영이도 어느새 청년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년 뒤 준영이는 신학대학원 진학하여 목회

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오랫동안 김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준영이가 수소문 끝에 김 선생님을 찾아왔다. 준영이는 김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기억하세요? 그때는 선생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삶의 방향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문득 선생님이 늘 제게 해주셨던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작은 씨앗이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선생님이 세웠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자신이 작고 소박했던 섬김이 준영이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소중한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 뒤 얼마나 위대한 생명으로 피어날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신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는 아이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다음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패라 이르면 거두리도다(갈라디아서 6장 9절)"라는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은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며,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꾼이다. 힘내세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들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섬티아고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파란 지붕에 하얀 건물이 인상적이지요. 이번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다녀온 순례길에 섬티아고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소악도에 문준경 전도사를 가리며 만들어 놓은 12개의 기념 건물을 돌아보는 길로서 12사도의 순례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

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12사도의 이름으로 하나 씩 만들어 약 4-5마일 길에 띄엄띄엄 세워졌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름이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증도라는 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증도는 거의 99%의 주민이 교회를 다니는 섬이 되었습니다. 약 2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교회가 11개나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 한국 기독교에 위대한 인물이 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국 CCC 창시자 김준곤 목사님과 성경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이만신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문준경 전도사님

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남편에게 시집을 오면서 극심한 좌절을 느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한글을 깨우치고, 서른 넘어 신학을 공부하여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공산주의자들의 박해가 심해진 상황에서 결국 끌려가다가 서울이 수복되었지만, 증도의 성도들은 계속 아직 달아나지 못한 공산당에 의해 곤욕을 치루는데 문준경 전도사는 섬마을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증도로 돌아와 자기를 죽이고, 성도들을 놓아달라 애걸하여 문준경 전도사만 순교당하고, 모든 성도들은 풀려 났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빛나는 본보기가 된 문준경 전도사님의 생애를 가리며, 만든 것이 섬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여론은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이런 순례길을 만든 것을 반대하여, 12사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가, 다시 증도 기독교인들이 헌금하여, 사도들의 이름을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곳 저곳에 남아 있는 기념관들, 박물관들, 그리고 순례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섬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간직된 유물들을 통해 신앙을 전수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한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여행 가이드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3대 가족이 신앙전수를 목적으로 이런 투어를 일부를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곧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념비적인 은혜의 역사가 대를 이어 3대가 함께 디아스포라 교회의 신앙을 지켜가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수능 날 ‘모바일 신분증’ 불가… 전자기기 제출 깜빡하면 ‘시험 무효’

교육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

오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 수험생은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휴대폰·스마트워치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재·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 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 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밀어서 내려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

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사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서다은 기자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요”... ‘부정맥’ 방치 시 돌연사 위험

‘부정맥’ 환자, 4년 새 25% 증가
주기적 자가 맥박 측정 큰 도움

심장은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가장 건강하게 뛰고 있다. 정상 맥박 범위는 1분당 60~100회다. 단, 정상을 벗어나 평소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뛰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다. 심장 박동의 불규칙함, 바로 부정맥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르면 부정맥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50만1493명으로 2020년(40만2766명) 대비 약 24.5% 증가했다.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신호 생성이나 전달에 이상이 생겨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분당 60~100회로 규칙적이지만, 부정맥은 이러한 정상 리듬이 깨진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부정맥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영신 경희대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는 “겨울은 심장을 긴장시키는 계절로 몸은 추위로 부터 열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오르게 되고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게 되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며 “심장이 두근거리

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단순 피로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정맥의 발병 원인은 유전, 노화, 스트레스, 과음 등이다. 정상인에게도 흔히 관찰되는 심방조기수축, 상심실성빈맥 등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부정맥이 있는 반면,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는 심방세동, 급사를 일으키는 심실빈맥과 같은 위험한 부정맥도 있다.

평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부정맥과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맥은 양상과 치료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어떤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빈번히 나타나며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은 ‘심방세동’이다.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빈맥’이 대부분이나 방실전도 상태나 복용 중인 약제에 따라 맥박 수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환자의 약 30%는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영신 교수는 “심방세동은 주로 술을 마신 저녁 혹은 다음날에 주로 발생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며 속취로 오인해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

졸중 위험이 5배나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방세동 진단에는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검사(홀터검사)가 활용된다. 이후,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유무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후 상황에 따라 항응고제 등을 활용해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이영신 교수는 “최근에는 혈압계, 스마트시계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도 손쉽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면 주기적으로 자가 맥박 측정을 권장한다”며 “75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심전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거나 30분 이내로 짧게 지속되는 경우, 가슴에 전극 패치를 부착해 일상생활 중 심전도 데이터를 연속 기록할 수 있는 패치형 심전도 검사를 활용하면 부정맥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와 과음, 흡연, 카페인 과다섭취 등은 삼가고,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심장 박동을 급격히 높이는 흥분상태나 과도한 신체활동은 피해야 한다.

특히 술은 한 잔만 마셔도 부정맥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음주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서다은 기자

농식품부, 청년농 2000명 선발한다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오늘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선발
만 18~40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5일)부터 2026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자금난과 소득 불안정에 직면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과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40%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제공된다. 아울러 농자시설 매입 및 인자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존,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전 상담을 하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진행하던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 서류·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담당하며, 정성지표 영역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또한 선정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다음 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 farmer, 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다음 달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이우리 기자

향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제품 구매하러 가기 →
153새싹마늘 스마트스토어

N 153 새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합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2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2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로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복대교회 청북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께서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바이블지식IN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요?

성경은 부활이 현실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죽음이 육체적인 삶의 최후일지라도, 인간 존재자체의 끝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말세에 한 차례의 일반부활만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지만, 성경에 서는 몇 차례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전에, 또 어떤 이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기 전에 부활의 있을 겁니다(다니엘 12:2, 요한복음 5:28-29).

첫 번째의 위대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네 개의 복음서에 각각 기록되어있고 (마태복음 28, 마가복음 16, 누가복음 24, 요한복음 20),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었으며 (사도행전 1:22, 2:31, 4:2, 33, 26:23),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들에서도 반

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로마서 1:4, 빌립보서 3:10, 베드로전서 1:3). 고린도전서 15:12-34에서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이자 그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고 크리스천들이 갖는 확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사도행전 17:30-31). 영생을 위한 부활은 “첫째 부활”로 묘사되고(요한계시록 20:5-6), 심판과 고통을 받기 위한 부활은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6, 13-15)으로 묘사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위대한 부활은 휴거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휴거의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교회시대는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그 분과 함께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에 끝날 것입니다(요한복음 14:1-3, 데살로니가전서 4:16-17). 사도 바울은 이때에 모든 크리스천이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한 몸이 주어질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50-58). 지금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또 이미 죽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옮겨지고, 그 분과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대한 부활은 환난 말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그분의 재림)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대기에 의하면 교회의 시대가 휴거로 끝나고, 그 후에 도래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의 시기는 세상에 내려질 끔찍한 심판의 시기로, 요한계시록 6-18에서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시대의 믿는 자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이 땅에 남겨진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이때에 그들의 본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게 될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6:9-11, 7:9-17, 13:7, 15-17, 17:6, 19:1-2). 환난 도중에 죽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고 천년 동안 그 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4, 6). 욥,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과 같은 구약성경의 믿는 자들과 심지어 세례자 요한 (교회시대 시작 전에 암살됨) 또한 이 시기에 부활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몇몇 구절들을 통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욥기 19:25-27, 이사야 26:19, 다니엘 12:1-2, 호세아 13:14). 에스겔 37:1-14은 주로 죽은 시체들이 소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용된 언어를 봤을 때, 죽은 이스라엘민족들의 육체적 부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요한계시록 20:4, 6).

천년왕국의 말기에, 성경에서 암시는 되었으나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 또 다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의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 도중에 육체적 사망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자주 받은 자이리라” (이사야 65:20)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천년왕국에서의 죽음은 오직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계만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하 지 간에, 영원의 시간 동안 새로운 존재로서 살기에 적합해지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에서 있던 욥의 몸에 어떠한 종류의 탈바꿈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각각 “부활된” 유형의 신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불로 파괴하실 것이 분명합니다(베드로후서 3:7-12). 하나님의 피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악과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베드로후서 3:13, 요한계시록 21:1-4). 하지만 욥의 몸으로 환난 중에 생존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천년왕국 도중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

고, 욥의 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영원히 살 수 없고 부패하게 되는 육신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왕국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부패할 수 없는, 부활하고 영화 된 몸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5:35-49).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죽을 필요 없이 부활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이것은 옛 땅과 우주에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의 이전되는 기간 도중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베드로후서 3:13, 요한계시록 21:1-4).

전 세대에 걸쳐 존재한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인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5)과 현재의 지구와 우주의 파괴 (베드로후서 3:7-12, 요한계시록 20:11) 이후에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실 것입니다(요한복음 5:25-29). 이것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일어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다니엘 12:2) 다니엘이 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28-29)이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미래에 일어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크고 흰 보좌” (요한계시록 20:11)를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거기에 앉으신 그 분으로부터 “피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주 전체와 지구 자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이 불로 소멸되는 것 (베드로후서 3:7-12)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는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천년 이후에 부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요한계시록 20:5). 그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절대 소멸되지 않는 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마가복음 9:43-48).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행실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책, 즉 어린양의 생명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요한계시록 21:27).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못”에 던져집니다(요한계시록 20:11-15). 이 심판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 책에서 이름을 올린 자들은 용서를 받고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요한계시록 20:6). 갖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Galatians 2:21 NIV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uld be gained through the law, Christ died for nothing!

- set aside: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을 무시(無視)하다

-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 for (접속사): 왜냐하면

- righteousness: (도덕적으로) 의로움

- gain: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다

- die for nothing: 헛되이 죽다

Genesis 11:31 NIV

Terah took his son Abram, his grandson Lot son of Haran, and his daughter-in-law Sarai, the wife of his son Abram, and together they set out from Ur of the Chaldeans to go to Canaan. But when they came to Haran, they settled there.

- take : (사람을) 데리고 가다

- daughter-in-law : 며느리

- set out : 어떤 장소를 떠나 긴 여행을 시작하다

- Chaldeans : 갈데아인

※ Chaldea (바빌로니아 남부 지방의 고대 왕국)

- settle : 정착하다

창세기 11장 31절

테라는 자신의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롯, 그리고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사래를 데리고 갔으며, 그들은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갈데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했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A B C

해방산농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성경의 궁금증 성서화로 풀기(5)

매년 교회에서는 성경일독 행사를 한다. 올해도 복음서의 앞부분을 읽다가 '예수를 찾아온 동생들'이란 기사 부분에 가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개역개정, 마태 12:46-47)

이날 만남은 동생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며칠 후 예수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수근거렸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사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개역개정, 마태 13:54-56)

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형제자매들이 있구나.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데 개신교 성경은 앞에서는 '동생들'이라고 쓰다가 네 사람의 이름을 밝힐 때는 '형제들'라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친 형제인가 아니면 사촌형제쯤 되는가. 동생들이나 형인가 하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성서화 한 폭이 생각났다. 성가족이 이집트로 피란 가는 그림이다.

아기 예수와 탄생 하였을 때에 헤롯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두 살 이하 사나아이를 살해할 것을 명령하였다. 요셉은 천사의 현몽에 따라 산모인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나귀에 태워 이집트로 피란을 가게 된다.

조토(Giotto)가 예수의 일생 연작으로 그린 <이집트에서의 피신>(The Flight into Egypt)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나귀에 타고 간다. 늙은 요셉은 나귀 고삐를 잡고 선두에 있고 천사가 길을 인도한다.

그런데 피란길에 또 다른 동행자가 보인다. 젊은 소년 하나가 요셉 옆에서 가고 나귀 뒤에도 말쑥한 소년 셋이 따라가고 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는 약 1500

마일(약 2414 킬로미터)이나 된다. 험악한 산길과 메마른 광야를 지나 수천리 길을 갓난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피란 가는 길이다. 이 어려운 피란길의 소년 동행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가족이 아니면 같이 갈수가 없다. 그럼 요셉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던 얘기구나. 그림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예수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4세기에 종교개혁적인 신학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주제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The Perpetual Virginity of Mary)'이다.

당시 논쟁의 중심에는 개혁 신학자인 헬비디우스(Helvidius 또는 Helvetius)가 있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복음서의 4인의 형제는 마리아가 예수 이후에 낳은 동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의 동정성을 강조하는 정통교부들 중 라틴 어성경을 번역한 제롬(Jerome, 성 히에로니무스 340-420)은 383년에 <헬비디우스 논박, 복되신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마리아는 예수 이외에 다른 자녀를 낳지 않은 영원한 동정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형제자매는 "4촌 형제들"이라고 하였다.

정통교부 중 또 한 사람인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315-403년경)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을 주장하면서도 제롬과는 달리 성경의 형제자매는 요셉의 전실 소생인 아들이라고 하였다. 즉 예수와는 이복 형제라는 주장이다.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 이전의 예수탄생 묘사에서 요셉의 역할은 매우 부차적이었다.

따라서 아가예수는 성모 차지이고 요셉 가까이에는 보이지 않는다. 요셉은 일반적으로 백발의 노인으로 표현된다. 어떤 그림은 성가족을 그리면서 요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희미한 모습으로 그리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동방박사의 경배>에서는 요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 젊은 모습의 요셉을 만나기도 한다.

무리요의 '성가족'에서는 어린 예수는 손에 새를 붙잡고 젊게 묘사된 요셉의 무릎에 기대어 작은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



조토(Giotto) | <이집트에서의 피신> | 1304~6 | 파도바, 스크로베니에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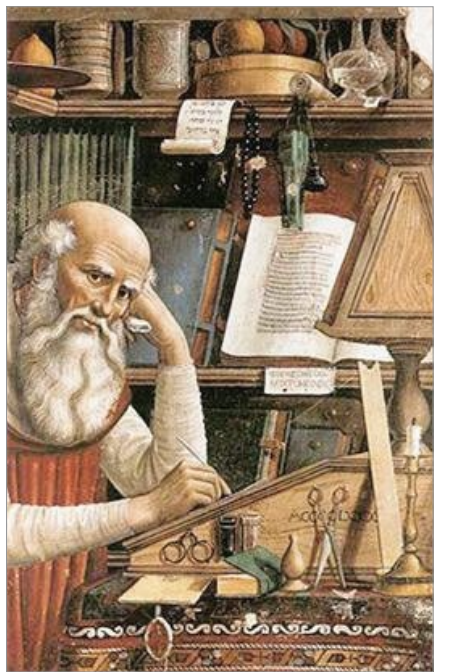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 <강아지와 함께있는 성가족> | 1650년경 |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다.

마리아의 탄생축일과 성모영보(수태고지)축일, 그리고 성모승천축일 등 3대 성모축일을 지키는 가톨릭 전통에서는 마리아의 조부로 부터의 가계가 확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동정성'에 따

라 복음서에 '예수의 동생'이라는 표현은 없고 원전에 따라 '예수의 형제'라고 번역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동정녀 탄생은 엄격히 지키고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 이외에 동생들이 있다는 헬비디우스의



제롬(Jerome, 히에로니무스) | 340-420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교회의 흥정역이나 NIV에서도 형제들(brothers)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NIV 주석에서 헬비디우스의 주장이 자연스러운 이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성경은 다소 놀라운 번역을 하고 있다.

예수를 찾아온 형제들에 대해 처음부터 최근의 개역개정본까지 '동생들'이라고 번역하였다. 다만 개신교가 가톨릭과 함께 한 공동번역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복음서에서도 4인의 형제들 이름을 열거한 부분에서는 시종일관 '형제들'이라고 하여 다소 헷갈린다.

1887년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최초로 번역한 한글성경인 <예수성경전서>에서는 형제들이란 표현은 없고 모두 '동생들'이라고 번역했다.

4인의 동생들은 예수공생애 초기와는 달리 예수부활 후에는 목숨을 거는 대전환을 하였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고 야고보서의 기자로 인정받고 있다. 야고보의 형제가 기록하였다고 밝힌 유다서의 저자는 바로 네 동생의 하나인 유다임을 인정받고 있다.

성경번역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도들의 신조인 사도신경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귀중한 신앙고백임에는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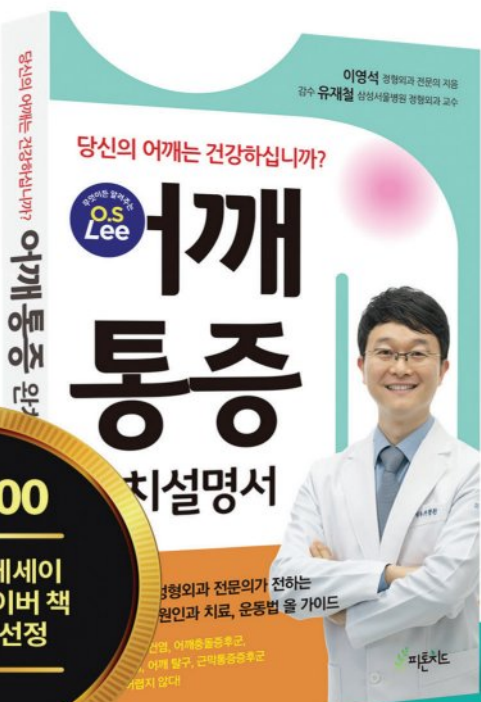
◆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가정'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g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시편 57편의 음악목회 이야기

시편 57편 묵상에서 떠오르는 음악목회 단상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



김영국 목사

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곁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역술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깎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깎지어다 내가 사백을 깨

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 하나님의 찬송가집인 시편에서 시 57편은 다윗의 동굴 찬양대의 탄생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아돔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찬양과 예배의 회복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돔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 명이었더라” (삼상 22:1-2)
- 동굴 찬양대원들의 자격은 환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떠올리게 한다(마 5:3-10).
- 아돔 동굴에서 다윗의 최고의 찬양이 탄생하였다. 다윗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다.
- 7절은 희생적 찬양을 뜻하는 찬미의 제사장장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다.

- 8절은 찬양자 스스로의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손을 연상케 하는 균형이 있는 교육철학을 보여준다.
- 9절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다.
- 10절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찬양의 핵심 단어임을 알려주고 있다.
- 11절에서 우리는 찬양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난 주 미주 중앙일보에 실린 김영교 시인의 칼럼을 소개한다. 시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우리 음악목회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아돔 동굴처럼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 아침에 음악으로 코로나 스트레스 넘는다 - 김영교 시인

“음악을 듣는 순간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름다워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다. 음악요법을 말하는 듯하다.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진다. 그 마음이 편안한 몸을 만들기 때문에 쉽게 회복에 이른다. 마음이 한없이 선량해지고 영혼을 울리는 ‘음악과 함께 삶’은 신이 인간에게 살

길을 제공해준 방향 제시였다.

요사이 음악치료가 뜨고 있다. 음악이 인간 생리와 심리에 미치는 기능적 효과를 이용하여 교정하고 회복시킨다. 구약 성서에도 나온다. 다윗이 사울왕의 우울증을 하프 연주로 치료한 이야기이다. 음악에 내재해 있는 영혼의 울림이 정신적 안정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큰 효과를 낸 것이다. 하프 연주 뒤에는 다윗의 사랑이 녹아 있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메시아나 9번 합창 교향곡, 또 글로리아를 작곡한 헨델, 베토벤, 비발디 등의 음악가들이 신의 영감으로 불후의 대곡을 작곡하게 된 것도 그렇다.

불면증에 걸린 어린아이에게 조용한 자장가를 들려주니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 열병 환자에게 조용한 쇼팽의 왈츠곡을 들려주었더니 열이 내리는 작용을 하기도 하며, 부드러운 실내음악 연주가 강심제 작용과 혈압을 강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스위스에 사는 조카를 방문했을 때다. 젖소를 키우는 이웃 목장에는 어울리지 않게 곱고 맑은 음악이나 요들송이 온종일 흘러나와 의아했었다. 젖소를 기르고 있는 목장에서야 조용한 클래식은 우유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 또 양계장 닭들에게 은은한 음악을 들려주고 난 뒤에 산란율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들었다. 이렇듯 음악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

을 체감하고 돌아왔다.

음악이 소화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동의보감> 기록에 놀랐다. 비장은 노래와 관현악을 좋아해서 귀에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오면 비위가 동하여 음식을 삭히게 된다는 기록이 있더니 참으로 신동하다. 옛날 연회석에 늘 가무가 등장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음악은 소리 교제이다. 음악을 통하여 사랑의 본체인 창조주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영혼이 마땅히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힐링 메커니즘에 들어서는 사람의 첫 관문이다.

사람은 신이 만든 가장 훌륭한 악기니 음악 중의 음악은 역시 인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여과된 천상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입을 통한 찬양은 창조주를 높임과 동시에 나의 세포가 공명한다. 세포가 기뻐하는 원리가 건강으로 직행, 즉 힐링으로 가는 ‘길’임을, 성인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이제 음악

의 효과로 증명한 셈이다.

현대의학에 있어 갖가지 치료법 등장, 회복의 길을 간다. 눈-입으로 하는 치료는 사람이 하고, 음악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부족한 듯 영혼이 기뻐 공명하는 자연의 소리는 답이다. 새들의 지저귀이 산 계곡을 흐르는 냇물, 폭포 소리, 또 숲을 휘도는 바람 소리, 초목을 숨 쉬는 나뭇잎 소리, 해변을 첩첩이는 파도 소리, 빗소리, 이 모든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악이다. 창조주의 음악에 자신을 온통 맡기는 일은 인간의 몫이다. 거대한 오케스트라, 이 ‘자연과 더불어’ 인류는 생존한다. ‘자연 보호’는 인간의 미래이다.

연약한 인간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간 창조주야말로 가장 위대한 음악가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학교도 교회도 쉬는 방학 기간이다. 인간과 대자연의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를 이 코로나 스트레스가 우거진 현실에 초대하면 어떻게.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자고 일어남의 영성 (시편 3절 5절)



김철원 목사

성경 속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하룻밤 평안히 자고 일어남을 감사하는 신앙고백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시 3: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찬양사역자였던 다윗은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죽지 않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큰 감사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찬양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마다 감사하지만 일상생활 속의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요 찬양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사내용들 중에는 모두 이와 같은 차원에서 감사하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시 4: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꺾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 하리이다

(시 90: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함

(예레미야 애가 3: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과거 찬양이었던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찬송가 속에도 이러한 고백은 나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찬 338장)

2절) 내 고생 하는 것 옛 아픔이 돌베개 베고 잠 갑니다. - 고생돌베개 (동격이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 잠들 때 드린 기도입니다.

4절) 아픔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돌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속의 계시를 받았습니

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찬 490장)

1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주소서

밤과 아침에(잠들 때와 잠깨 때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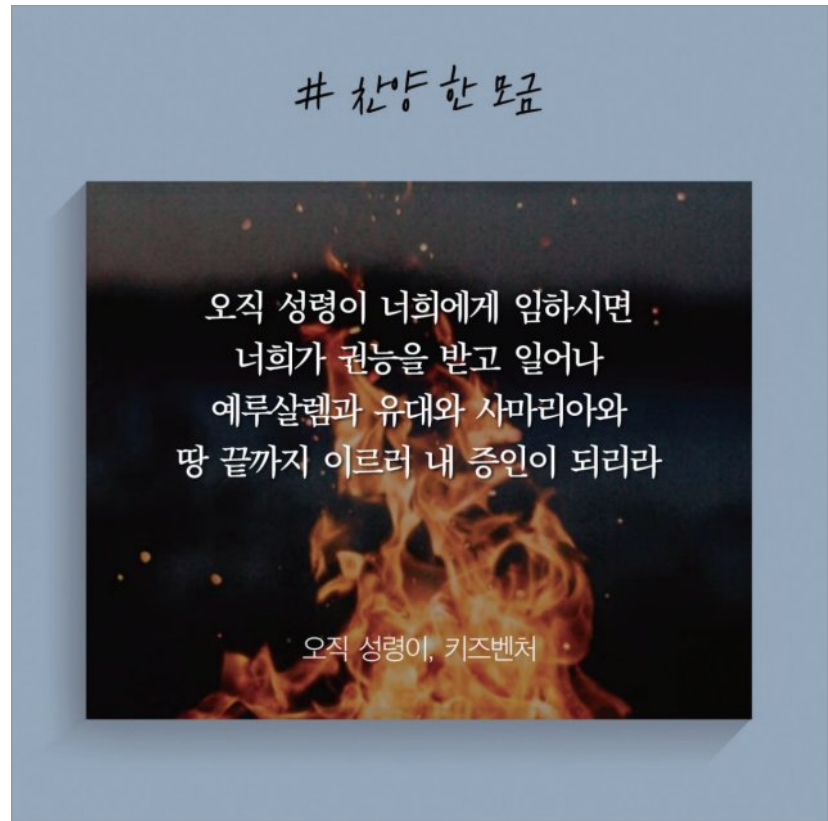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뵈오리라

이 두 찬양 모두 자고 일어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고 잘 일어나 꿈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찬양의 기사 내용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찬양사역자들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찬양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고 일어나는 듯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찬양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방효성 작가 제35회 개인전… 5~22일 갤러리 빛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풀어내다

방효성 작가의 제35회 개인전 ‘카이로스’가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빛’에서 열린다. 방효성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크리스천 작가이자 실험적인 미술가로 잘 알려져 있다.

저 있다. 평면 회화와 설치, 입체,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카이로스’라는 주제로 평면과 입체 작품을 선보인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또는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이다. 세상의 물리적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제에 대해 방 작가는 “하나님의 시간은 천 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 년 같은 시간의 개념”이라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려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평면 드로잉 20점과 입체 오브제 작품 20점이 전시된다. 대표적으로 입체 작품 중에는 검은 상자속에 시들어버린 꽃다발, 곰팡이가 피어난 떡 등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며 부패·변질되는 ‘물리적 시간’을 상징한다. 반면 먹과 붓의 속도감이 돋보이는 드로잉은 순간의 흔적을 포착한다. 여백에 남겨진 빠른 선의 흔적은 지워짐과 그려짐이 동시에 남는 시간의 역설을 드러낸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방 작가는 현재 송학대교회 장로로 시무

중이다. 경희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대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참가하기도 했다. 방 작가는 크리스천 작가에 대해 강연하며, “기독교 미술인들이 열린 시각으로 무한한 창조의 화열을 느끼며, 종교화 혹은 표제적인 기독교작품에 갇히지 말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또한 이듬해 2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백선영 기자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 ‘2025 캠퍼스워십 컨퍼런스 시즌 2’ 명동 충무교회서 열린다

예수전도단 서울대학지부(YWAM SEOUL WAVE) 찬양사역팀인 캠퍼스워십팀이 주관하는 ‘2025 캠퍼스워십 컨퍼런스 시즌 2’가 오는 11월 22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충무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FM: Faithful Messenger, 주님의 마음을 사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라는 주제로 준비됐다. 강사로는 김상인 목사(음직이는교회)가 참여해 말씀을 전하며, 캠퍼스워십팀이 찬양을 인도한다. 참석 희망자는 캠퍼스워십 공식 인스타그램(@ywam_campusworship)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캠퍼스워십팀은 지난해 8월 ‘RE: LIGHT THE BIBLE’, 올해 5월 ‘청춘예찬: 청춘이여 예수님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연속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전했다. 이번에도 청년들이 말씀과 예배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싱글 ‘주기도를’ 발표했던



예수전도단 서울목요모임 현장의 모습. ©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은 새로운 앨범 작업에 한창이다. 올 연말 녹음을 마치고 내년 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높이는 예배 앨범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예수전도단 서울목요모임’으로 명칭이 변경된 캠퍼스워십 예배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명동 충무교회(4호선 명동역 4번 출구)에서 열린다. 장지동 기자

작곡가 유승문, 클래식 크로스오버 CCM 싱글 ‘너를 찾아오셨네’ 발매



지난 6월, 클래식 크로스오버 CCM ‘너를 찾아 오셨네(You Found Me)’를 발표했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유승문 씨가 성악가 테너 이완규 씨의 목소리를 담은 후속곡 ‘너를 찾아오셨네’를 가지고 찾아왔다.

베테랑 사운드 엔지니어이자 대학에서 음향을 가르치는 교수, 순복음 옥수교회 음향간사이기도 한 유승문 씨는 클래식과 CCM을 접목한 앨범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함께 한 성악가는 중앙대학교와 이탈리아 베니스 국립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과 뮤지컬 ‘천로역정’ 등에 출연했던

테너 이완규 씨다. 이완규 테너는 “이 곡은 깊은 밤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여 홀로 올 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곡”이라며 소개한다. 다양한 감정과 미묘한 변화를 담기 위

해 ‘G키’와 ‘A키’ 버전의 트랙을 모두 담은 이 앨범에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피아노 연주와 편곡을 CCM과 방송음악, 클래식 편곡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전소영 씨가 맡았다. 유승문 프로듀서는 “이 찬양이 영혼구원과 전도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린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간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90회) 3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웅)	1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김형진 목사(에베소교회) 30 생명의 말씀-김대훈 목사(부산초량교회)	20 할렐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생명의 양식 삼승(김형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33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53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4회)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삼남교회)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20 행복한 쉼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휴먼네트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81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5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8:00	20 우리교회는 지금	20 할렐송 30 행복한 쉼터 대구서문교회 소문수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4회)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79회)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5강	00 성지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30 비전메시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3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0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	10 새롭게하소서(11360회) 이성근 선교사 2부	00 THE 공금(36회) 천사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30회)
오후	1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00 다큐 더 로드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인이 함께 드리는 수요일예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	00 CBS NEWS 10 20 맨투맨 처치2(6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56회)	00 만나 워십 감병삼 목사
	11:00	0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50 바이블 프로젝트	30 행복한 쉼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1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50 예수동행일기	00 맞나는 교회(27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76회) 오택원 교수 세 번째 14강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 사해사본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4회) 50 글로벌 신앙토코쇼 왓츠업(35회) 노출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유영만 목사(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30 사랑의 메시지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강단 시온(박성준)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30 강연소 통(34회) 나는 느린 사람입니다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00 행복한 쉼터 군포사랑교회 성권용 목사 30 행복한 쉼터 높은뜻성교회 정재상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2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8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0 말씀의 창 구례제일교회 김영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오마이갓생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메시지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11027회) 래퍼 사츠기 2부	00 백석의 생터(25회)
저녁	15:00	10 구자영 목사의 트롯찬양교실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77회) 고린도전서 10강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이상문 목사(두란노교회)	00 사랑의 메시지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10 성지가족(108회) 50 더 콜링(136회)	00 내 삶의 행복(18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복상 3분 미라클	00 류영모 목사의 멋진 이야기 20 행복한 쉼터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 50 행복한 쉼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38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32회) 50 영혼의 양식-양현(김동인)	00 성지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선우웅 목사(이름교회) 30 TV찬양예배	2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교육선교 국제컨퍼런스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미음(남상진)	30 말씀의 창 선교중앙교회 박태권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광림의 시간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	00 거룩한 뜻 세움의 시간(32회) 30 TV강단 정동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인제제2교회 도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저녁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20 RE바이블	00 한소망 말씀 (최봉규)(142회) 50 크리스천칼럼 순복음원당(고경환)	30 글로벌 신앙토코쇼 왓츠업(35회) 노출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40 GOODTV 뉴스	00 청동염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79회)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5강 50 살롬 뿔뿔(8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칼럼(39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GOODTV 시네마 천국에 다녀온 소년 2부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360회) 이성근 선교사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73회) 오택원 교수 세 번째 11강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 제우스 신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24회)
	23:00	10 더 메시지 4	00 우리들의 지식살롱 30 선교의 땅 나가사키를 가다	10 J.D. 그리어의 보이지 않는 구원자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10 극우의 그늘을 넘어 복음의 빛으로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1회) 50 리바치즈 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할렐스토리 10 명사들의 명강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10 CBS 아카데미 쇼(165회)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1:00	00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4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10 예배실황 한소망교회	00 [말씀] 이종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4회) 40 성령의 시대(13회)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44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2:00	30 백세특강	10 오 자유여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등포교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감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13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50 위대한 발견을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J.D. Greear's Rescue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성통증양장로교회)	00 율포원(680회)	00 만나 워십 감병삼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의 양식 대일리뷰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손재홍 목사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기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78회) 마태복음 3강 50 CBS 교회사(102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20회) 이도원 목사 30 말씀 관통 이름 목사의 성경 맥잡기(445회)

SAMSUNG

Smart LED signage
for Building바로 지금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코엑스 K팝 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삼성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연속 세계판매1위를 기록해온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삼성전자의 글로벌 노하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닷컴 비즈니스 견적문의



* 디스트릭트의 퍼블릭 미디어아트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 프리미엄 미디어아트 플랫폼 LED.ART의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고품질 LED

플리커와 모아레를
최소화한 AI 프로세싱,
HDR10+ 기술

※ 플리커(Flicker): 디스플레이 화면이
빠르게 깜빡이는 현상

※ 모아레(Moire):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발생하는 줄무늬 패턴

원격 제어 솔루션
적용 (별도 구매)

원격으로 제품 컨트롤이나
상태 모니터링 가능
원격 콘텐츠 배포 가능

※ 지원 기능은 모델별 상이